

민주연구원, 『슬기로운 지방선거』 2호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 발간

-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 60%대 고공행진… 무당층 표심 흡수가 승패 가를 것

25일(수),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대비를 위해 기획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브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②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호 브리핑에 이어 이번 제2호는 역대 선거 데이터와 여론조사 지표를 분석하여, 6월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를 4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허니문 선거’ 효과와 높은 국정지지율의 프리미엄이다. 대선 직후 치러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는 모두 여당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작용해 각각 민주당(광역단체장 14:2)과 국민의힘(광역단체장 12:5)이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정권 초기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야당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며,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최고 83%의 국정지지율로 야당을 압도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이래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6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세대별 맞춤 전략의 필요성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주력 지지층은 40대(국정지지율 75.0%)와 50대(72.4%)로 나타났다. 반면, 18~29세(43.9%)와 30대(55.0%)의 국정지지율은 전체 평균(59.3%)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2030남성은 60

대 남성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투표율 하락 시 나타나는 '고령층 과대대표' 현상 극복이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수준을 밑도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직전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대선과 비교할 때 20~40대의 지선 투표율은 약 30%p 폭락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표율 하락 폭은 10~17%p에 그쳐 결과적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투표의 40.2%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선거 막판 승부를 결정지을 '무당층'의 향방이다. 정치 상황에 따라 약 20% 내외로 등락하는 무당층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감소하며 주요 정당 지지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2025년 대선 직전 14%까지 줄었던 무당층 비율은 대선 직후 27%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호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와 이번 2호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에 이어, 대한민국 자치 혁신의 핵심 아젠다를 다루는 제3호 브리핑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을 향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참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프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브리핑 전체 발간 일정

- | | |
|------------------------------|---------------------------|
| ① 2026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 (3.23.월) | ②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 (3.25.수) |
|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 (3.27.금) |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 (3.30. 월) |
| ⑤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 (4.1.수) | ⑥ 지방선거, 여기부터 시작하자 (4.3.금) |